

맷돌: 대극의 합일과 새로운 의식창조의 상징

Millstone: The Creation of a New Coalescence Consciousness of Opposites

유 세 연*

Yoo Se Yeo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symbolism of Millstone appeared in psychotherapy like sand play therapy with symbol work. Symbols not only deliver meanings but also have numinous power, which produces transformation through powerful energy from emotional experience. Symbols help human's mentality develop by compromising opposites which cause confli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Millstone in human history and the symbolic meaning which appears in mythology and tales and alchemy, and to explain universal and cultural meaning of millstone connected to psychological symbolism. Millstone represents pain through sacrifice of grain, death and the creation of new consciousness as a symbol of the rebirth. Also, it explains the circulation of original nature as a symbol of destiny to overcome by the integration of anima and animus. The millstone described as the symbol of Self in the marriage of mythology represents the coniunctio oppositorum between men and women, a combination of yin and yang. It is the symbol of wholeness integrating conscious and unconscious. Through this study, we consider that millstone is the psychic center of the ego- Self axis and the individuation in the psychotherapy is the process of unceasing transformation of one's whole personality which experiences the process of balancing, regulating and unifying. Consequently, millstone functions as symbolic intermediation that leads to the center of one's whole psyche.

Keywords : symbol, millstone, ego-Self axis, mandala, coniunctio oppositorum

* 마리아동가족상담센터 상담연구원 (serena1101@hanmail.net)

I. 서 론

현대인들에게 기계화와 문명의 발전은 더 이상 낯선 환경이 아닐 것이다. 간소화된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하지만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게 되며 물질의 가속화를 불러온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상실한 채 정신적 폐해를 가져오기 쉽다. 인류는 300만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을 유지했다(이이화, 1998).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중기에 나타난 갈돌과 갈판은 한 조를 이루며, 나무 열매나 곡물 껍질을 벗기거나 갈아서 분말을 만드는 가공 도구이다. 돌로 만들어진 갈판 위에 절구 공이나 갈돌을 이용해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여서 식량 재료를 얻는 원시적인 방식인 연장으로 맷돌이라고 할 수 있다. 도토리의 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문명의 발달과 함께 맷돌과 절구로 발전시켜 사용되어왔다(<http://jeju.grandculture.net/>). 곡식이 주식이었던 우리는 절구를 이용하여 낱알의 껍질을 벗긴 다음, 맷돌로 가루를 만들어 다양한 음식재료로 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어느 집 부엌이나 곳간, 마루 한쪽에 항상 자리하며 음식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이자 옛 여인들의 전유물이라 할 만큼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였다. 하루도 쉴 틈 없이 돌려야 했던 맷돌에는 여성들의 고단한 삶과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여성들에게 있어 맷돌질은 일상적인 집안일중 하나였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반복되고 복잡한 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없이 자신을 담금질하며 고통을 견디어내고 그 희생만큼 값진 창조물을 얻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어진 가루는 빵과 갖은 음식들로 재생되어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영양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맷돌은 새로운 창조물을 얻기 위해 변화시키는 것, 숙명을 뜻한다(Cooper, 1978).

우리나라에서 맷돌은 풍요와 다산, 재화의 상징이며 형구(刑具)틀로 쓰이기도 했다. 또한 여성의 인생 나날을 상징한다. 매일 바느질하고, 맷돌을 돌리고, 아이를 낳고, 밥 짓는 것이 여성의 일평생 숙명이기 때문이다. 산모가 난산일 때 그 남편이 맷돌이나 빨랫돌을 들거나 지고 마당을 도는 풍습이 있다.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산고의 고통을 나눈다는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맷돌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위, 아래쪽이 포개지지 않도록 따로 둔다. 곡식을 넣지 않고 가는 빈 맷돌질은 가난 그 자체이며 흉년이 든다고 여겼다. 중국에서는 맷돌을 신으로 받는다. 산둥(山東) 지방에서는 맷돌을 귀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선달그믐 날 밤, 맷돌에 향을 피우고 제례를 올린다. 또 정월 열흘날을 돌의 날로 쇠며, 맷돌에 쌀가루를 묻쳐서 기름에 튀긴 떡도 바친다. 이렇게 하면 일 년 내내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 여유를 누린다고 믿었다(김광언, 2002, pp.83).

밀을 갈아서 생산하는 빵과 맷돌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빵을 만들기 위한 불과

밀가루, 그것을 뺀 맷돌, 맷돌을 돌리는 나귀 등은 여신의 속성을 나타내며 여성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자연의 영양을 공급하는 기초가 되고, 자양분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모권적 영역에 속하며 대지의 여신이 된다. 여성성의 상징은 영양, 생식, 보존, 창조, 변형의 기능을 지닌 자양분의 증여자이자 변환자이다(Neumann, 1974/2007, p.90). 여기에서 맷돌은 영적 탄생이 발생하는 주술적 그릇이자 변환의 그릇이다.

맷돌을 이용하여 가루를 만드는 기술은 분쇄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합, 재구성을 위한 예비단계이다(이어령, 2007). 맷돌에서 갈아진 밀이나 콩은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처럼 새로운 형태를 낳는 창조적 변환과정인 것이다. 곡물이 맷돌에 의해 분쇄되고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은 연금술의 작업과정 중 용해(해체), 죽음, 합일의 단계를 의미한다. Edinger(1985)에 따르면, 연소, 용해, 응고, 상승, 죽음, 분리, 대극합일 등의 7가지 작업과정을 통해서 연금술의 변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광물질은 수난 받고 죽어서 새로운 존재 양상으로 재탄생한다. 즉 수난의 통과 의례적 기능을 물질에 투사하여 '고통' 과 '죽음' 과 '재생'에 상응하는 연금술 조작에 의해 물질은 '금'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Mircea, 1977/1999, 154p). 맷돌질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빵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는 것이다.

밀이 주식이었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맷돌질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리스인은 유한존재인 생명의 존엄성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스인들이 만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술 때문이었다. 예술이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소녀뿐만 아니라, 곡물도 역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Jacob, 1997/2002). 곡물의 씨앗은 심리학적으로 인격화된 아들 즉, 자아(ego)를 의미한다. 단단한 씨앗이 맷돌로 인해 찢기고, 조각조각 잘리고, 가루가 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재생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필수 이행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육체를 정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밀의 정령'의 고문, 죽음, 부활로 창조적 변환을 위한 시련을 보여준다. 서양문화에서 밀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밀로 만든 빵은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밀과 포도의 재배는 인간의 근면, 인내, 헌신, 노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문화의 산물이며 계절에 따라 소멸하였다가 다시 소생하는 누미노즘(Numinosum) 즉, 인간과 신의 결합을 나타낸다(Jung, 1984/2007, p. 235).

맷돌은 본래 하나의 바위에서 떼어 낸 돌을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에 맞게 위, 아래 돌로 나누고 원모양으로 다듬어져 하나의 쌍이 된다. 맷돌은 솟맷돌과 암 맷돌이 한 짝을 이루고 있어, 남녀의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이어령, 2007). 이것은 대극의 쌍으로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 연금술에서 물질을 결합시키는 도가니는 여성의 자궁으로 은유되었으며 화학적 변화는 남녀의 성행위와 동일 시 되었다. 남녀와 같이 음과 양의 대극적관계로 나타나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맷돌은 회전하는 수레바퀴와 같고 자기(Self) 상징인 만다라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맷돌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윗돌과 아랫돌이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심막대와 회전시킬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하다. 이 손잡이를 '맷손',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맷손이 사라져 맷돌을 돌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처구니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어떤 물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부분을 가리킨다. 손잡이가 없는 맷돌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돌에 불과하다. 맷돌을 회전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막대가 나타내는 상징은 평범한 현실의 방편이 아니라 누미노제를 지닌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이부영, 2012. p.602). 이처럼 맷돌은 문명의 발달에 가장 최초로 출현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후의 도구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이고 문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맷돌에 대해 민담이나 신화, 연금술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맷돌상징에 나타난 대극과 새로운 의식 창조의 과정을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통찰해보고자 한다.

II. 맷돌의 특성

맷돌은 거친 바위로 된 밑돌이나 맷돌에 윗돌이라고 불리는 좀 더 작은 돌을 위에 얹은 것으로 구성되었다. 윗돌이 돌의 긴 축을 따라 평행으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아랫돌의 윗돌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것은 큰 진전이였다. '회전 맷돌'은 더욱 진화하여 윗돌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위에서 곡식을 부어 넣고, 가루는 두 돌 사이로 배출되게 했다. 로마인들은 거칠고 날카로운 표면 때문에 화산암의 형태를 선호했다. 맷돌은 수력과 풍력으로 움직이는 물방아로 진화했지만 곡식을 손으로 가는 일부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Challoner, 2009).

맷돌은 아랫돌과 윗돌이 한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랫돌은 솥맷돌 이라고 하고 가운데에 솥쇠(중쇠)라는 쇠꼬챙이가 꽂혀 있으며 윗돌은 암맷돌이라 하여 한 가운데에 솥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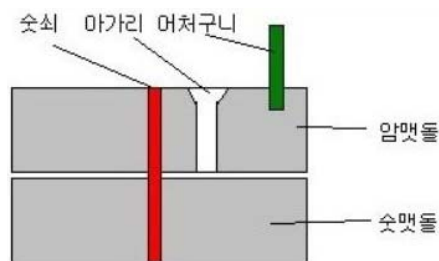


그림 1. 맷돌의 원리

<http://blog.naver.com/always0133/150143432065>

들어가 싸고 들 수 있는 암쇠가 있다. 윗돌 윗면에는 곡식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아래로 뚫려 있으며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두 짝 모두 꺾끄럽게 정으로 쪼아 놓았다. 옆쪽에 수직으로 달린 맷손을 잡고 돌리면 윗돌의 무게와 거친 면의 회전력에 의한 마찰로 곡식이 갈려 아랫돌의 옆 부분으로 밀려나면서 떨어진다. 분쇄된 곡식이 잘 빠지도록 아랫돌은 약간 볼록하게, 윗돌은 오목하게 만들고 듬성듬성 골을 낸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주로 제작되던 화강암으로 만든 맷돌과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만든 맷돌은 이미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매를 쫄 필요가 없다. 화산의 분출로 생긴 용암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맷돌감으로 적당하다. 맷돌의 크기와 모양은 매우 다양해서 적은 것은 지름이 20cm에 불과하지만 절에서 사용하던 맷돌은 1m 가 넘는 것이 있다(박호석, 안승모, 2001).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이던 맷돌은 대체로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곡식의 탈곡만을 해 내던 나무로 만든 맷돌, 안쪽 면을 다소 얇게 만들었던 돌로 다듬어진 제분용 맷돌, 안쪽 양면을 곱게 다듬어 풀을 먹이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을 갈던 돌로 만든 풀매가 있다. 풀매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마을단위로 1~2개를 제작하여 공동 우물가에 놓고 마을 여인들이 함께 쓰도록 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맷돌이 전파되며 생겨난 두부로 승려들이 고기를 대체할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사찰에서 큰 맷돌이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맷돌의 손잡이 맷손을 '어처구니'라 부르는데 이 맷손과 맷테의 재료는 물푸레나무이다. 물푸레나무는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라는 뜻으로 어린가지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보면 파란 물이 우러난다. 물푸레나무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어 농경문화에 유용하게 쓰였다. 겨울에 채취한 물푸레나무는 못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불이나 물을 이용해 휘어서 말리면 복원력이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농기구의 도끼 자루, 맷돌손잡이, 창 자루, 곡식을 털 때 쓰는 도리깨 나무로도 쓰인다(국립민속박물관, 2000).

맷돌을 만드는 이를 석수(石手)라 부른다. 석수가 산기슭에 올라 적당한 돌을 발견하고 돌을 깎 때는 먼저 술과 안주 등을 준비하고 무탈하기를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 석수는 산 판에서 돌을 떼거나 그 돌을 맷돌로 만들 때 쓰이는 정(이를 "쪼는 정")을 베풀거나, 맷돌에 박을 암쇠나 숫쇠도 모두 손수 만들어 사용한다. 석수는 대장장이의 역할도 갖고 있다. 숫쇠를 맷돌에 박을 때 잡는 용도로 쓰이는 집게도 물푸레나무이다. 탄광에서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길이 2센티미터 내외의 쇠팡팡이로 정을 만든다. 화덕에 숯을 가득 담고 불을 살린 다음 쇠팡팡이를 파묻고 풀무질을 계속한다. 쇠팡팡이 익으면 모루에 얹어 큰 맷돌망치로 두드려서 늘린다. 끝이 가늘어지면 다시 불에 담갔다가 꺼내어 부리를 세운다. 이런 작업을 부리 끝이 단단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국립민속박물관, 2000).

Ⅲ. 뱀들의 상징성

1. 여성의 의식발달에 나타난 뱀들 상징

노이만(Neumann, 1974)에 의하면 뱀들은 죽음과 운명의 상징으로서 베틀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실 짓는 일, 빵 굽기는 여성성과 관련된 원시 비의 중 하나이다. 여성은 자양분의 증여자이자 변환자이며, 동시에 무서운 모성의 한 속성인 죽음 뱀들의 상징에서 부정적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우주의 자궁으로 치환되어 표현되는 여성의 창조성은 자연의 신성을 내포한다. 뱀들의 상징은 긍정적 의미에서 화덕, 특히 가마 및 빵 자체와 연관되어 음식을 공급하고 신성한 생명을 변환시키는 저장소가 되어 자연의 변환을 가져온다. 다음의 변환자로서의 모성 <발트민헨>이라는 민담에서 자연 모성에 의해 긍정적인 아니무스를 발달시키는 한 소녀의 이야기에서 변환의 상징으로 나타난 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형제자매도 없는 작은 소녀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이고 심술궂었다. 한번은 밤에 전혀 자려고 하지 않자, 어머니는 화가 나서 발트민헨이 소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발트민헨이 방 안에 나타났다. 등 쪽에 높이 달린 등불을 가진 두 마리의 토끼가 발트민헨 앞으로 가고 있고, 그녀 뒤로 역시 두 마리의 토끼가 그녀의 엄청난 크기의 옷자락을 끌고 있었다. 발트민헨은 부모가 제발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빌어도 듣지 않고 처벌을 위해 어린 소녀를 데리고 갔다. 숲에서 발트민헨은 소녀를 동굴에 데려다 놓고, 소녀의 제멋대로의 태도를 고치려 하였다. 벌을 주기보다는 먼저 소녀에게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발트민헨의 시종들이 아서 동굴의 뒤에 있는 예쁘고 아담한 집으로 소녀를 데려갔고, 그 곳에서 안전한 아이들과 놀면서 착하게 잘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녀는 거기서도 여전히 제멋대로 심술궂은 태도를 보였다. 발트민헨은 아주 무섭게 변하여 말하기를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소녀를 하루 종일 팔에 끼고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은 키가 더 큰 나무들이 뻗뻗이 자란 삼림 지역이었다. 마침내는 무시무시한 물소리가 나는 곳에 이르렀다. 발트민헨과 소녀는 세 개의 진기한 뱀들과 거대한 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였다. 발트민헨은 소녀에게 한 뱀들의 바퀴에 자리를 잡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노래하길, 《젊은 것은 늙어지고, 늙은 것은 젊어지네.》 뱀들이 한 바퀴가 돌아가면, 소녀의 삼일이 지나갔다. 그 사이에 발트민헨은 다른 뱀들들에 가까이 갔다. 하나는 여성 뱀들이고, 또다른 하나는 남성 뱀들이었다. 여성 뱀들 앞에서 있던 두 남성들은 발트민헨을 뱀들 상자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러자 발트민헨이 뱀들 밑에서 돌아위로 올라오자 젊고 아름답게 바뀌었다. 그 사이에 소녀는 나이 들고 주름이 주글

주글한 노파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자 노파가 된 소녀는 소중한 시간을 제멋대로 하면서 보내고 말았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의 빛을 역력하게 드러냈다. 후회의 빛이 너무 역력했으므로, 발트민헨이 불쌍하게 여겨 여성 맺들 속에 그녀를 집어넣게 하였다. 그래서 소녀는 다시 이전보다 더 젊고 아름답게 되었다. 발트 민헨과 소녀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뜻밖에도 소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 사이 아버지는 작은 딸을 찾아다니느라 상심하여 완전히 늙어버렸다. 자연히 이제 그는 남성 맺들에 의해 다시 젊게 되었다. 젊어진 아버지는 말을 잘 듣게 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소녀의 남동생이 태어났고, 소녀는 그 남동생을 충실하게 잘 보살폈다. 소녀는 몇 년 뒤에 용감하고 씩씩한 사냥꾼과 결혼하였는데, 그때 발트민헨은 소녀에게 귀중한 선물을 선사하였다(Oeri, 2003/2007, pp.280).

발트민헨 이야기의 소녀는 결국 모성 안에 머물러 성장하지 않으려는 우리 인격의 유아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모성은 더 강력한 상징으로 나타나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리도록 요구한다.

Neumann은 남성의 개성화의 열매는 지식(knowledge)이고, 여성의 개성화의 열매는 변화(transformation)이라고 말했다(Jaffe, 1990/2006). 여성 맺들을 돌리는 남성은 소녀의 아니무스를 의미하며, 여성은 아니무스의 투사에 의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운명임을 나타낸다. 이 운명의 시간은 시간의 수레바퀴처럼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돌아가고 있다. 무의식은 항상 정신의 의식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추가해서 보충해주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위험한 균형상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무의식은 항상 되풀이 되면서 원형적 상을 환기시켜준다. 심리학적으로 모성적 무의식은 자신의 내용으로 채운 투사를 통하여 인간의 운명을 시간과 공간에서 실현한다. 그 자신은 무시간적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심연에서 작용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Oeri, 2003/2007, pp.289).

아니무스의 퇴행은 여성의 의식이 무의식의 원시적 아니무스, 권력과 돈에 지배될 때 일어난다. 그러나 아니무스가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지혜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창조적 효과를 자기 자신과 사회에 주게 될 것이다(이부영, 2001, p.208).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다루는 것은 더 많은 원형적 경험들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의식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여성은 내면 깊숙이 무의식에서 비롯된 경험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2. 죽음과 재생의 상징으로서 맺들

맺들을 만드는 석수는 돌을 다듬는 재주뿐만 아니라 대장장이의 기술도 지니고 있다.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연장도 신성성을 갖고 있다. 쇠팡치, 풀무, 모루는 살아 있는 불가사의

한 존재이다. 이것들은 대장장이의 도움 없이도 자체의 주술적 종교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Mircea, 1977/1999). 석수가 다루는 돌은 단숨에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허용치 않는 정직한 질료이다. 하찮고 평범하게만 여겨지던 돌이 석수의 정성스런 손끝을 거치며 창조적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석수는 연금술사이며 뱀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수한 영적 상태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의 작업과정과도 같다. 또한 곡물이 뱀돌의 입구에 넣어져 암흑 속에 분쇄되어 해체되는 것은 이집트 오시리스의 죽음과 이시스의 카오스 상태에서 새로운 가치를 되찾기 위한 연금술 변환의 작업과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Jung에 따르면 연금술사들이 '물질'이라고 부르던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말한다(Mircea, 1977/1999, p.222).

뱀돌에 의해 희생되는 곡물 즉, 물질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신성화 되었고 연금술의 작업과정 중 용해, 죽음, 합일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용해의 비법으로 해체(dismemberment)를 언급한다. 뱀돌의 입구, 변화의 통로로 들어가는 씨앗의 수난은 가루로 해체되어 물과 함께 섞이며 빵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연금술에서 해체는 종종 고체가 액체로 변하거나 입자로 분쇄되는 과정을 말한다(장미경, 2015, p.116).

곡물은 뱀돌에 갈릴 때 고통을 당하고, 아마(亞麻)는 꺾일 때 고통을 당하며, 포도는 압착할 때 동물처럼 피를 흘렸다(Jacob, 1997/2002). 불교에서는 먹을 빵을 만들어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가장 큰 고통으로 간주했다. 죽음 및 땅에 매장되는 이미지는 씨앗을 뿌리고 싹 틔우는 것과 항상 연계되어왔다.

“씩을 몸은 묻히지만 씹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린도 전서 15:42-44 AV)

죽음은 실패와 패배로 경험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죽음의 경험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혹은 내면으로 부터의 삶에 의해서 나타난다. 우리는 고통, 죽음, 재탄생에 대해 문화적 도구인 비극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만약 때가 되었다면 그로 인해 개성화의 진정한 변환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Edinger, 1985/2014).

죽음은 연금술에서 암흑, 패배, 고뇌, 절단, 사망, 그리고 부패와 연관되는 가장 부정적인 작업에 속한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측면의 이미지는 종종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성장, 부활, 재탄생을 유도한다. 새로운 형태가 존재로 이어지는 모든 생성에 부패가 선행하기 때문이다. 이것 안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으며 죽은 것은 씹고 그런 후 이 모

든 죽은 것들은 다시 생명을 얻는다(Edinger, 1985, p.177). 괴테의 표현을 빌리면 죽어라 그리면 되리라(stirb und werde). 자아(ego)가 의식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만큼 삶이 마음의 심층에 배열된다고 할 수 있다(Edinger, 1985, p.211).

풀은 곡물이 되어 빵과 성체로의 변환과정을 거친다(Neumann, 1974, p90). 가톨릭 미사의 제물로 봉헌된 빵과 포도주는 인간인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통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며 성찬의 전례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다. 희생을 주도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신의 변환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영적변환을 의미한다. 빵과 포도주의 모습을 띠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상징적인 제물의 단일성 안에서 집약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이다(Jung, 1984, p. 237).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은 찌르고 못 박히는 수난으로 오시리스 신화 같은 절단의 신화적 측면과 겹쳐진다. 절단은 심리학적으로 의식적 동화의 목적을 위해 근원적인 무의식적 내용을 구분하는 변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응축된 고통, 죽음, 부활의 의미, 인간이면서 신인 그리스도의 대극성과 초월성은 그리스도 상을 하나의 전체성의 상징, 즉 자기의 상징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는 숙명적인 희생으로 성취하였다. 그리스도의 삶은 심리적으로 개인적 자아(ego)안에서 화육을 겪는 자기(Self)의 변천과정과 신성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자아의 변천과정을 나타낸다(Edinger, 1987).

샤먼의 통과의례 과정에서도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잔인한 고통을 참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신의 소명에 따른 성스러운 고통이다. 정말 소명이라면 고행을 참고 견딘다. 장차 샤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을 겪어야 한다. 사지가 잘리고 뜯기며 모든 뼈가 수집되고 다시 묶인다(이부영, 2012, P.66).

연금술적 변화는 폰 프란츠에 의하면 연금술의 내적 물질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물질에 인간의 정신을 투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래, 피겨, 놀이, 상상 등의 상징에 정신내면을 투사하여 치료하는 심리치료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은 변화를 위해 깨어져야 한다. 깨어진 물질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혼합되어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태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조망이 이전 것에 정신의 기존 구조는 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장미경, 2015).

교회에서 맺들은 형벌, 무거운 짐, 분쇄, 견고, 순교를 상징한다. 무거운 맺들을 목에 메달아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지는 형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한국 가톨릭교회에도 박해의 흔적인 맺돌 모양의 형구들이 남아있다. 1791년(정조 15년) 신해교난(辛亥教難)으로 연풍지역에 은거하던 가톨릭 교인이 1801년(순조 1) 신유교난(辛酉教難) 때 처형당한 자리이다(출처: doopedia.co.kr). 연풍성지에는 사람의 목을 조인 밧줄을 맺돌 구멍에 끼워 끌어당겨 숨을 끊는 형틀이 전시되어있다. 순교의 정신은 죽음으로 재생산되

고 순환하며 영원한 영속성을 갖게 한다. 순교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헌신, 대의적 희생으로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개인을 그에게 합당한 운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초개인적인 사랑은 대합일을 초래하고 대합일에 의하여 초래된다. 대상사랑(object love)은 개성화의 외향적인 측면으로 진정 여겨왔다. 이러한 대상사랑은 개인적 욕망을 배제한 객체적인 사랑(object love)이고 대극의 쌍 한쪽 편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대극을 넘어서는 것이다. 초개인적인 사랑은 모든 집단의 뿌리에 그리고 가족, 정당, 국가, 교회, 인류 전체에 대한 헌신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충성심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합일의 외향적 관점은 우리에게 사회적 관심과 인류로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내향적 관점은 우리에게 자기(Self)로의 연결과 개인정신의 통합을 증진한다(Edinger, 1985, p.265).

맷들은 인간 정신의 본질을 대면하기 위해 무의식으로 하강하여 변환하는 죽음과 운명의 상징을 나타낸다. Jung(1985)에 따르면 무의식과의 대면의 목표는 변환이며, 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의식은 여전히 변함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며 분석 과정과 자기 이해로도 신경 증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권미라, 2015에서 재인용). 맷들에 분쇄된 밀은 해체와 죽음이 빵, 즉 새로운 생명의 창조물로 부활하는 것이다. 연금술에서 응고 뒤에는 죽음과 부패의 작업이 뒤를 잇는다. 바로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초월을 요구하는 소명과 고난으로 이어진다. 죽음이 새로운 자아로의 변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회이며 진실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진실로 살 수도 없다. 입문식에서도 죽음의 상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M. 엘리아데는 "모든 입문식에서 보여주는 죽음은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거듭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삶에 새로운 용어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김성민, 2012; E. M, 2002).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삶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식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낡은 자아가 죽지 않고 새로운 자아로의 전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대극의 합일을 상징하는 맷들

대극인 것들 사이에 의식이 거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의 심리학적인 의미는 한 개인이 의식을 획득하려면 대극적인 요소들을 자신 안에 담아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다(Edinger, 1985). 사람에게에는 본능적 충동을 추구하려는 성향과 영적 상태에 도달하려는 성향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는데, 상징은 그 두 가지 충동이 갈등상태에 있을 때 상징을 만들어 내며 정신에너지가 새롭게 흐르게 하면서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치유와 변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김성민, 2013).

암맷들과 솟맷들로 되어 있는 대극의 합일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신성혼 신화를 들 수 있

다. 신성혼 신화는 “모든 대극이 되는 인물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주제”를 다룬다(이유경, 2008). 신성혼의 상징으로 흔히 맺들을 예로 든다. 또는 인간은 남녀의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인류기원신화 가운데 1923년에 민속학자 손진태 선생이 함경도 함흥에서 채록한 신화에 관한 이야기이다.

“옛날 홍수가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남매만 살아남았다. 물이 다 빠진 후에 세상에 나와 보니 어디에도 인적이 없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인류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남매가 결혼할 수도 없었다. 남매는 생각다 못해 각각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맺들을 굴러 하늘의 뜻을 묻기로 했다. 남매는 맺들을 굴리며 하늘에 기도를 했다. 여자는 암맺들을 남자는 숫맺들을 굴러 합쳐지면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다. 굴러가던 맺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로 포개졌다. 오누이는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혼인하여 자손을 퍼뜨렸다.” (조현설, 2006).

이와 같은 내용의 민담은 비슷한 신성혼의 신화소로 세계 각국에 전해진다. 동아시아에서는 연기, 홍수의 모티브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맺들의 상징이 인류의 보편적 정신에 대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산은 원형적 산 어머니(Mountain Mother) 즉, 누미노제를 지닌 위대한 여신이다. 산은 대지적 이미지를 함유하여 생명과 풍요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이나경, 2015). 구릉과 산의 여성 신격의 상징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혼으로서 대지의 여신에게서 태어난 오누이가 맺들을 굴리는 운명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낸다는 의미이다. 무의식은 의식에 통합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도 ‘구원 될’ 수도 없다. 오누이의 짝은 무의식이거나 무의식의 본질적인 내용을 나타낸다.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무의식의 존재를 상기함으로써 침체 상태를 끝내라는 의미이다(Jung, 1985/2004).

오누이의 근친상간적 결합은 모두 신성혼의 근저에 있는 우주론적 개념을 표출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남녀의 결합은 결혼, 즉, 대립물의 화해, 상호작용, 합일이자 신과 지상세계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신과 여신, 신관과 무녀, 왕과 여왕의 성혼(聖婚)은 하늘과 땅, 태양과 달, 태양의 황소와 달의 암소의 신비한 결합을 나타낸다. 천지의 활력, 가축의 다산, 곡물의 풍작은 이들의 성혼에 의한 것이다. 또한 결혼은 영적(靈的) 합일을 상징한다. 즉 대립자가 서로 상대에게 자신을 맡기고 생사를 통과해서 합일한 다음 죽음을 계기로 새로 태어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낸다(Cooper, 1978).

신화에 등장하는 상징에서도 자기(Self)는 종종 여성성-남성성의 대극적 쌍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근친상간적 주제는 결핍된 인격의 어느 한 측면의 통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상반되어 보이는 “둘” 일지라도 본래 정신은 하나이다. 신성혼 신화에서 근친상간적 결합을 강

조하는 이유는 원래 서로 하나였던 관계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비적 결혼관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대극의 합일coniunctio oppositorum'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합일, 의식과 무의식, 남성과 그의 '아니마', 여성적 의식과 '아니무스'의 합일을 전통적 결혼관에서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성 간의 결합관계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이부영, 2011).

의식을 획득해 근원적인 정신으로부터 멀어져버린 정신이 다시 근원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근친상간적 관계로 나타난다.

4. 개성화 과정을 상징하는 멧돌

멧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필수품에 속했다. 우리는 곡식 껍질을 벗겨서 통으로 조리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끼니마다 곡식을 곱게 갈아서 빵을 구워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멧돌은 평범한 살림도구가 아니었다. 모세 율법도 다른 사람의 멧돌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멧돌은 커녕 멧돌 위쪽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신명 24,6 참조). 이처럼 멧돌은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던 것이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멧돌가는 소리는 사람들이 정상적 삶을 살고 있음을 알리는 정겨운 소리였고, 그것이 사라지면 폐가가 됐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성서에서 멧돌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느님이 내리신 심판의 징조(예레 25,10 참조)와 도시의 멸망(묵시 18,22 참조)을 상징했다(허영엽, 2006).

이처럼 멧돌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멧돌을 저당 잡힌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남에게 담보로 하는 일이었다. 또한 멧돌 돌리는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버려진 상태와 황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결국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않은 채 팽창된 자아로 살아가는 오만한 태도이거나, 자아(ego)-자기(self) 축이 손상되어 소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병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개성화 과정에 나타난 멧돌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 빠져 머리카락을 잃고, 두 눈이 멀게 되어 힘을 잃고 자하감옥에 갇힌 무력화된 삼손을 보여준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신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자아(ego)와 자기(Self)의 사이가 일시적으로 소원해졌음을 암시한다. 신(神)과의 소외를 뜻하며, 자아(ego)와 자기(Self)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간 의식적 차원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삼손의 감금상태는 아니마에 사로잡혀 무력화된 상태를 뜻한다. 한 쪽으로 치우친 의식이 그 대극을 무의식에 배열하며 대극의 갈등을 통해 결합하려는 것이다.

자아(ego)가 자기(Self)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한 자기(Self)를 분리된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종교경험에 대한 서곡으로 소외경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아(ego)는 자기(Self)를 "타자(other)로 경험하기에 앞서 자기(Self)와의 동일시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신을 동일시하는 한 신의 실존을 경험할 수 없다(Edinger, 1972/2016, p. 77). 삼손의 지하 감옥 생활은 귀환을 준비하는 변형의 방이다. 부정적 아니마에 사로잡혀 사지가 절단되고 눈을 도려내는 고통의 의식적 분리와 죽음은 재생과 새로운 생식을 위한 과정인 것이다. 삼손의 지하 감옥 즉, 지하세계로의 하강은 요나가 머무른 고래 뱃속과도 같다. 무의식의 어둠 안에서 자신과 적극적인 내면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삼손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맺돌을 돌려야만 하는 별을 받는다. 아니마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퇴행하였고, 지하는 대지의 모성이며 반드시 변환을 따라야만 한다. 가두어 놓은 동굴, 지하 감옥은 연금술적인 용기이다. 불같은 흑독한 시련과 고문은 "셋(몸, 혼, 영)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변환을 가져오기 위함이며 이 세 가지가 통합된 인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Edinger, 1985).

자아(ego)발달의 대극으로 그림자가 생긴다. 의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면 그림자는 그만큼 깊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하 감옥에서의 맺돌을 돌리는 형벌은 헤아릴 길 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만 즐기 빛을 찾아가는 내면과의 조우이다. 심리학적으로 진정한 자기(Self)와의 결합을 위한 주술적 행위로 극복해야할 운명을 나타내며 내면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의 영혼인 아니마를 경험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삼손은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온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개성화 과정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평생의 과정이다. 자기(Self)와의 대면을 통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영웅의 삶에 드러나는 자기발견과정이자 삶 속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개성화 과정이다.

변환을 이루어낸 맺돌은 '중심'의 상징인 대지의 배꼽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배꼽은 여신의 모테라는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은 '중심(배꼽)'으로부터이며 이는 세계의 축(Axis Mundi)이다. 창조세계를 만들어 내는 우주의 맺돌은 아랫돌이 대지, 회전하는 윗돌이 하늘을 상징한다. 또한 아랫돌은 의지, 윗돌은 지성을 나타낸다. 맺돌은 회전하는 바퀴와 같고 자기(Self) 상징인 만다라의 이미지로 표현된다(Cooper, 1978). 만다라 상징은 대극합일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Jung은 만다라는 사람이 외부적인 것을 배제하고 내면적인 것을 보존하면서 중심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그림이라 했다. 이 만다라는 음과 양에 있는 천지간의 모든 대극들의 융합, 그래서 흔들림 없는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이부영, 2002).

이미 정신에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정돈된 기하학적 패턴들, 즉 만다라가 나타난다. 그림 2와 3에서 나타나듯이 맺돌이 포개지는 곳에서 만다라의 무늬를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대칭의 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그림 2. 맷돌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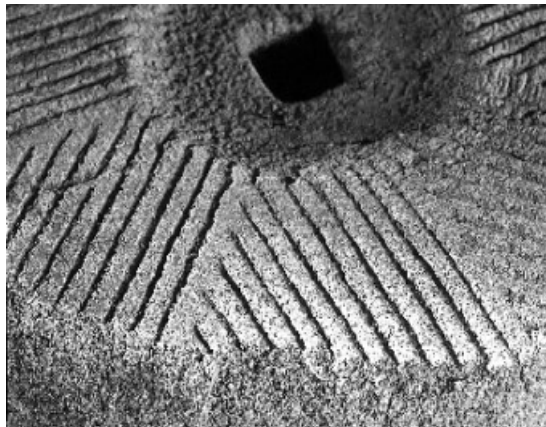


그림 3. 장도 청해진 유적지 맷돌 무늬

한다. 맷돌의 윗돌과 아랫돌의 중심에 있는 막대는 의식과 무의식, 자아(ego)와 자기(Self)를 연결하는 축을 상징한다. 세계의 축으로서 대(pole)는 의식, 무의식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초월적 원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위태로운 것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것을 안정시키며 대극 간의 긴장을 풀고 하나로 통합시키는 인간 무의식의 초월적 기능에 비유될 수 있다(이부영, 2012, pp.601).

맷돌의 원은 무한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항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인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다.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대칭의 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한다.

Jung은 인간의 삶을 '자기'의 순회circumambulatio 라고 기술했다. 즉, 내부의 중심을 향한

나선형의 여행이 삶이다. Jung에게 있어서 삶은 어떤 먼 목적을 향한 직선으로의 진전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거나, 결코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중심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이었다(Robin, 2012). 나선형(Spiral)은 수축과 확장, 출생과 죽음, 삶의 영원한 순환을 상징하는 원형상이다.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은 중심을 기점으로 한 삶의 전개 과정, 곧 융의 자기실현이다(이부영, 2002, p.165)

IV. 결 론

대극의 갈등 속에 원형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 맺들은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그러한 대극들 사이에 의식이 머무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살아가고 성장하는 공간이다(Edinger, 1985). 자아(ego)는 밖에 있는 것과 통합될 수 없다. 고통스런 삶의 순간과 직면하는 대극간의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그것은 숙명이며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연속적인 의식의 변환과정으로 드러난다. 맺들의 입을 통해 물질을 넣고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연금술적 변환과정은 상징적으로 무의식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기(Self)를 의식으로 드러내어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자기실현의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의 정신은 삶, 죽음, 삶으로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성숙해 나간다. 상징을 통해 고통 속에 깨어 있는 것, 제대로 고민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갖게 한다. 우리는 운명처럼 누구나 고통스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자신을 통찰하고 우리의 내면을 조화롭게 발달시켜나갈 때 외부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본성 즉, 인간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일 것이다.

맺들의 중심축은 자아(ego)와 자기(Self)의 긴밀한 관계임을 상징하며, 자아(ego)와 자기(Self)를 연결하는 축으로 결합이 없이는 회전을 멈춘 맺들처럼 무용지물이 된다. 즉, 자아(ego)와 자기(Self)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정신은 심각한 균열의 결손을 나타낸다(이부영, 2012, p.602). 인간에게 중심을 잡는 것은 경외심, 누미노제(Numinose) 체험을 안겨주는 것이며 즉,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 힘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나날을 의미하는 맺들은 모성적 상징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음과 양의 대극을 상징한다. <신성혼 신화>를 통해 모성에서 함께 태어난 오누이는 본래 한 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발달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합일을 통해 모든 대극을 통합한 양성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극합일의 기능을 Jung은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다. 그것은 곧 무의식의 기능이고 합리와 비합리를 융

합하고, 무한한 의미를 잉태하고 있는 상징이다. 인간의 정신에는 대극으로의 분리 경향 뿐 아니라 대극합일의 조건이 원초적으로 존재한다. 모래놀이치료는 공간과 시간을 연계하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대입물을 통해 물질과 정신,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완화시켜 통합해 나간다. 한 개인이 의식을 획득하려면 대극적인 요소들을 자신 안에 담아서 견뎌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갈등하며, 평온해지기를 반복하는 과정과 치유를 위한 어두운 무의식의 세계로의 하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맷돌의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의 더 깊은 층을 이어주고 대극의 갈등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고통스러운 운명의 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일러준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며 전체성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개성화 과정인 것이다.

References

- 김광언 (2002). 동아시아 농기구 상징 연구, VI: 맷돌·맷방석·명석·명에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연구. 제6호 (2002. 10) pp.83-110
- 김성민 (2013). C. G. 융의 상징론 - 무의식과 종교상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85집, 2013.01, 235-261 (27 pages)
- 김성민 (2012).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신비주의. 학지사.
-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농경문화 1. 국립민속박물관. pp 114-130
- 권미라 (2015). 재생의 의미로서의 해골의 변환적 상징성.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Vol.6. No.1
- 박호석, 안승모 (2001). 한국의 농기구. 서울: 어문각. 188.
- 이나경 (2015). 산: 개성화를 잉태하고 있는 모성 상징성.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Vol. 6. No. 1
-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이부영 (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 이이화 (1998). 한국사 이야기 1.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한길사
- 이유경 (2008). 원형과 신화. 서울: 분석심리학연구소. pp. 215-217
- 이어령 (2007). 우리 문화 박물관, 디자인하우스 pp. 79-81.
- 조현실 (2006).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사.

- 장미경 (2015). 모래놀이치료
- 최인호 (1997). 설화에 등장한 민구의 상징성. 인하대학교. 博物館誌. 2호(1997.12) pp.91-105
- Challoner, Jack. (2009). *1001 Inventions That Changed the World*. For the Us & Ca Barron's Educational Series. (Trans. into Korea in 2010)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ew York: Thames & Hudson. (Trans. into Korea in 1994)
- Edward F. Edinger. (1972). *Ego and Archetype: Individuation and the Religious Function of the Psyche*. (Trans. into Korea in 2016)
- Edward F. Edinger. (1985). *Anatomy of the Psyche - Alchemical Symbolism in Psychotherapy*.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Trans. into Korea in 2014)
- Edward F. Edinger. (1987). *The Christian Archetype - A Jungian Commentary on the Life of Christ*. (Trans. into Korea in 2008)
- Jacob, H. E. (1997). *Six Thousand Years of Bread*. N.Y.; Doubleday, Doran, and Co., 1994. (Trans. into Korea in 2002)
- Jaffe, L. W. (1990). *Liberating the Heart: Spirituality and Jungian Psychology*. (Trans. into Korea in 2006)
- Jung, C. G. (1985). *Persönlichkeit und Übertragung*. CW3. Princeton: Bollingen/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 into Korea in 2004)
- Jung, C. G. (1984). *Menschenbild und Gottesbild*. CW4. Princeton: Bollingen/C. G.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into Korea in 2007)
- Jung, C. G. (1985).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CW6. (Trans. into Korea in 2004)
- Jung, C. G. (1985). *Heros und Mutterarchetyp*. CW8. (Trans. into Korea in 2006).
- Neumann, E (1974). *Die Grasse Mutter*. Patmos Verlag GmbH & Co., KG. (Trans. into Korea in 2007)
- Neumann, E. (2004). *Ursprungsgeschichte des Bewusstseins*. Druck und Binding: Clausen & Bosse, Leck. (Trans. into Korea in 2007)
- Mircea Eliade. (1977), *Forgerons et Alchimistes*. Editions Flammarion, (from Collection Champs). (Trans. into Korea in 1999)
- Sibylle Birkhäuser-Oeri. (2003). *Die Mutter im Märchen*. CH-4102 Binningen BL. (Trans. into Korea in 2007)
- Robin, R. (2012). *Jungian Archetypes*. (Trans. into Korea in 2012)

*Internet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0004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432&cid=40942&categoryId=31592>

<http://terms.naver.com/entry.nhn?d...> Wikimedia Commons, Stradanus

http://ocatholic.com/bbs/zboard.php?id=bible_10&page=10&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9.

http://pds.catholic.or.kr/pds/bbs_view.asp?id=9246&menu=4797 Heo, Y. Y. (2006). [평화신문, 2004년 11월 14일,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홍보실장)]

그림 1. 맷돌의 원리 <http://blog.naver.com/always0133/150143432065>

그림 2. 맷돌 무늬

http://www.andongji.com/andong/viewandong/content.asp?Jour_Num=986&cat1_id=70&cat2_id=1091

그림 3. 장도 칭해진 유적지 맷돌 무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8183&cid=42840&categoryId=42849>

투고일 : 2016. 05. 02
수정일 : 2016. 06. 22
게재확정일 : 2016. 06. 25